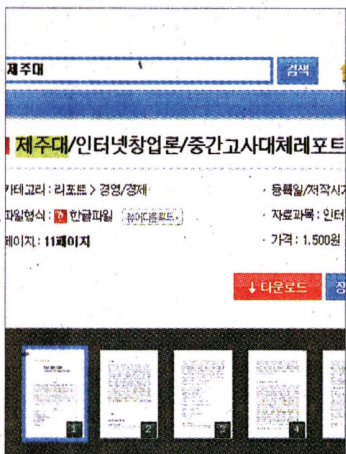


리포트 대행에다 금전거래 대책 시급

장당 5천원, 전공은 1만원에 거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인터넷에서 제주대 수업 과제물들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돈만 주면 과제물을 대신 써드립니다.”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과제물 대필’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에는 대학 홈페이지에 과제물 작성을 대신

해준다는 글이 버젓이 올라왔다.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게시물에 적혀있던 전화번호로 기자가 직접 연락해 “전공과 교양과목 과제물을 해줄 수 있냐”고 묻자 서슴없이 “자세한 가격은 과제물의 주제를 봐야 알 수 있지만 대부분 교양은 장당 5천원이고 전공은 1만원”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의료계에서 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인터넷 자료를 짜깁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작성하니 교수에게 걸릴 염려도 없다”며 “제주대 학생들도 전화로 많이 부탁하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말라”고 설명했다.

과제물뿐만 아니라 발표를 할 때 필요한 프리젠테이션 파일도 돈만 주면 내용부터 디자인까지 모두 만들어준다.

또 인터넷에서 완성된 과제물을 사고파는 일도 흔하다. 과제물을

전문적으로 사고파는 인터넷 마켓에서 ‘제주대’를 검색하면 학생들이 올려놓은 과제물들이 수도룩하게 나온다. 이와 함께 친구의 과제물을 베껴거나 지난 학기에 제출했던 과제물을 조금 수정해서 내는 학생도 있다.

과제물을 돈으로 사는 학생들 때문에 오히려 성실히 공부한 학생들은 불이익을 받는다. 학생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든 과제물과 돈을 주고 대필을 부탁한 과제물이 비슷한 점수를 받기 때문이다.

오수경(생물 2)씨는 “교수하며 과제를 하는데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들과 과제부분에서 비슷한 점수를 받는다는 사실이 억울하다”며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번 더 공부하라고 내준 과제를 그런 식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교수들이

과제물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과대학의 한 학생은 “많은 수업에서 과제물의 수준을 평가하기 보다는 기한 내에 정해진 분량을 제출하면 점수를 줘서 학생들이 과제를 대충하는 것 같다”며 “과제물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본다고 소문난 교수의 수업에서는 애초부터 학생들이 스스로 과제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비양심적으로 학점을 받으려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현수(법학과) 교수는 “비양심적으로 학점을 받으려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릇된 관념을 지닐까 걱정된다”며 “법적으로 따져도 과제물 대필이 국립대에서 이뤄지면 ‘위계(위험한 계획이나 꾀)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호성 기자



지난 4일 국제교류관에서 배우 고두심(59)씨가 허향진 총장으로부터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제4대 교수회장에 양길현 교수 당선

결선투표에서 379표 중 219표 획득

제4대 교수회장에 양길현(윤리교육과, 사진) 교수가 당선됐다. 지난달 29일 치러진 제4대 교수회장 선거에서 양길현 교수는 투표수 379표 중 219표를 획득해, 156표를 획득한 이상봉(회계학과) 교수를 63표차로 제치고 제4대 교수회장에 당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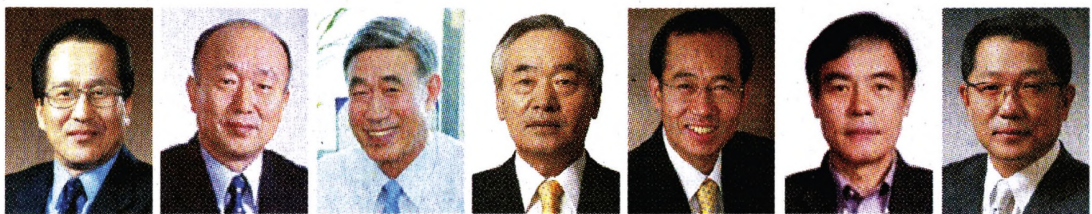
양 교수는 제주대학교와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에서 정치학 석사, 서울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9년 우리대학에 부임후 평화연구소 소장, 호주 퀸스랜드대학교 정치학과 방문교수,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동북아시아연구원, 제주특위 간사, 세계평화위협연구소, 천현학회 운영위원장, 제주도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등의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

양 교수의 임기는 오는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말까지 2년이다.



국내 주요기업 CEO 7명 석좌·초빙교수로 위촉

김중조 석좌교수, 'CEO에게 듣는다' 책임 교수로 위촉

제주대가 에드워드코리아, 하이셈, 동진세미콘 등 국내 주요 중소기업의 CEO 7명을 석좌교수와 초빙교수로 각각 위촉했다.

이들은 공과교육혁신센터가 올해 2학기부터 운영하고 있는 산학협력맞춤형 교육인 ‘CEO에게 듣는다’의 강사진 CEO 15명 중 7명을 선정해 1명은 석좌교수로, 6명은 산학초빙교수로 각각 위촉했다.

석좌교수에는 에드워드코리아 김중조 회장(SEMI International 회장)을, 초빙교수로는 하이셈 우의제 회장(전 하이닉스반도체 사장), 동진세미콘 이부섭 회장(전 화학공학회장), 신성이엔지 이완근 회장,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사장(한국벤처기업협회 회장)과 세크론 박희균 사장(전 삼성전자 미국 현지 법인장), 에버테크노 정백은 사장

을 각각 위촉했다.

김중조 석좌교수는 ‘CEO에게 듣는다’의 책임교수로, 이 강좌의 강사진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초빙교수들은 강의와 강자 운영의 자문 역할을 맡는다. 또 이공계 3~4학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해 강자와 별도로 운영한다.

거점 국립대 총장

지난달 30일 이틀간

2010년도 제2차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충남대 송용호 총장) 정기총회가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허향진 총장을 비롯해 거점 국립대 총장 10명이 참석해 ‘국립대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단계적 법인화를 비롯해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 교원 임용방식의 다양화, 성과급제 연봉제 도입, 교원 양성기관의 적정 규모화 등을 담은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교과부는 국립대 법인화 법안의 입법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알림 인터넷미디어 ‘JUMP’ 개통

〈http://news.jeju.ac.kr〉



지난달 16일자로 새로 출범한 언론미디어센터는 국내 대학원 최초로 인터넷에 한글기사와 영자뉴스, 동영상 등을 동시에 서비스하는 ‘JUMP’를

개통했습니다.

‘JUMP’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제주대신문, 영자신문 The Islander, 교육방송국 등의 기사,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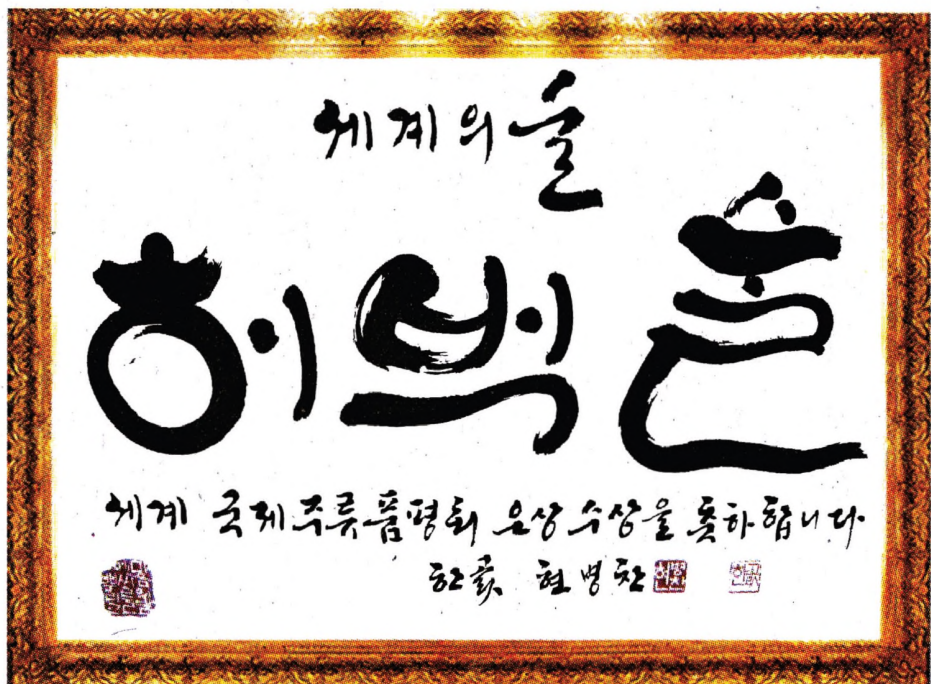
또 영자신문인 제주위클리, 인터넷신문 제주소리 등에 실리는 기사와 사진 등도 함께 동시서비스하고 있습니다. ‘JUMP’는 앞으로 컴퓨터조판시스템(CTS)과 연계시켜 신문이 나오기 전에 기사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뉴스, TV, English News 등 매체별 메뉴 외에 취업, 해외연수 등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주제별 메뉴도 편성,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주대학교 언론미디어센터

仲秋佳節

2010년 국제주류평가(IWSC) 실버베스트인 클래스 수상



IWSC란 세계 3대 주류평의회 중 하나로 1969년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영국버리(잉글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엄격한 블라인드테스트와 성분분석을 통해 년 1회 외연을 제외한 주종별 우수주류와 각국의 우수외원을 선정하고 있다.

참고: 지니친 술주는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운전이나 작업 등 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판매 금지)

올해 추석에는

세계자연유산처럼 세계(IWSC)가 인정한 명품 **한라산 소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물리종아 순한소주
(주) 한라산
www.hallasan.co.kr

● 선물세트 구입문의: 제주지역 전 할인매장 · 농협 · 수협매장

● 문의처: 한라산 영업부 T.796-6674

중앙도서관 프린트 비용 너무 비싸

단과대학마다 출력비용도 천차만별

중앙도서관이 들쭉날쭉한 프린트 비용과 비싼 가격으로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중앙도서관에 설치된 무인프린터의 인쇄비용은 A4용지 기준 장당 70원이다.

이는 도내에 위치한 국·공립도서관 뿐만 아니라 다른 국립대학에 프린트 비용인 40~50원보다 비싼 것이다. 심지어는 사립대학인 고려대나 한양대 등도 가격이 5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도서관에는 무인프린터 말고도 복사기가 배치돼 있다. 그러나 복사비는 장당 30원으로 무인프린터 인쇄비용에 비해 40원이나 싸다.

둘 다 똑같이 A4용지를 사용하고, 흑백으로 출력되는데도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난다.

게다가 각 단과대학 매점마다 프린트 비용도 제각각이다. 해양대학 1호관이나 법정대학은 매점에 프린터가 있어 인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용이 각각 40원, 100원으로 차이가 난다.

홍여주 (사회 2)씨는 "단돈 20~30원 차이이지만 과제 발표를 할 때는 100장 가까이 뽑을 경우도 많다"며 "그럴 때는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복사실마다 가격이 들쭉날쭉인 것은 중앙도서관 무인프린터를 학교가 아니라 개인업자가 운영하기 때문이다.

중앙도서관의 관계자는 "무인프린터 관리는 학교가 아니라 입찰을 통해 개인업자가 운영하게 된다"며 "프린트 비용에 대한 문의는 개인

업자를 통해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도서관 무인프린터 관리자는 "제주대 도서관은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학생들이 쉽게 찾아오지 못하고, 프린트 이용률도 낮아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다"며 "프린트 비용을 낮추면 적자를 메울 수 없다"고 답했다.

개인업자가 적자를 이유로 프린트 비용을 낮출 수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로서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명수(정치외교 2)씨는 "중앙도서관이 제주의 대표 국립대학 도서관으로서 최소한 다른 국·공립도서관이나 타 대학 도서관과 비슷한 수준에 가격을 받아야 한다"며 "프린터 운영이 적자를 본다면 학교에서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통해 가격 선을 낮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보배 기자

영어말하기대회

이치헌씨 대학부 금상

언론미디어센터(주한 교호성 교수) 영자신문사가 주최한 '제 31회 영어말하기대회'가 지난날 30일 막을 내렸다.

이번 말하기대회는 도내 중·고등·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2명의 수상자가 결정됐다.

다음은 대회 수상자 명단이다. 대학부 △금상 이치헌(국어교육 4) △은상 고준혁(건축공학 2) △동상 김상철(정치외교 2) △장려상 강유미(초등교육 2)

고등부 △금상 홍은총(제주제일고 2) △은상 한해련(사대부고 2) △동상 김수연(대기고 2) △장려상 문승재(대기고 1)

중등부 △금상 허재영(한라중 2) △은상 신희연(신성여중 3) △동상 한정민(서귀여중) △장려상 한예림(신성여자중학교)

축제 소음에 피해 심각

법정대·경상대 배려를

야간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법정대학과 경상대학 학생들이 축제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 가을을 맞아 각 단과대학과 학생자치기구의 축제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 여성축제와 대동풍이가 축제를 전후로 해 연달아 열리면서, 야간 수업 중에 노래소리와 학생들이 떠드는 소리가 강의실까지 들려 강의진행에 지장을 주기도 했다.

이는 단지 야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축제 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학생회관과 가까이 있는 법정대와 경상대에서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학 중 야간 강좌가 개설된 곳은 법정대와 경상대 두 곳 뿐이다. 두 대학에 개설된 야간 수업은 주중 법학과 22개, 행정학과 18개, 경영학과 19개, 회계학과 10개로 많은 수업이 야간강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행정대학원과 경영대학원 또한 야간에 강의가 이뤄져 열리면

서 두 대학의 학생과 대학원생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경상대에서 야간 수업을 듣는 한송이(야간경영 2)씨는 "야간 수업을 듣고 있는데 노래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깜짝 놀랐다"며 "교수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들리는 소음 때문에 수업 진행을 제대로 못해 화가 나신 것 같다"고 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법정대에서 수업을 받는 원지애(언론홍보학과) 대학원생도 "축제를 전후로 해 축제가 열려서 축제를 포함한 3주 동안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축제를 열어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소음이 예상되는 행사는 되도록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학 정승용(경영 3)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소음문제에 대해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단과대 행정실이나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는 정서적인 절차를 꼭 거쳐겠다"고 답했다.

이정우 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지난 4일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에게 20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다음, 장학금 2천만원 전달

(주)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최세훈)은 지난 4일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컴퓨터공학과 학생 8명에게 장학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제주대와 (주)다음이 인터넷 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공학교육혁신센터 다음 트랙(Daum-Track)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지원을 위해 이뤄졌다.

(주)다음은 지난 2004년 3월 제

주이전 이후 2007년 4월 30일 제주대와 산학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공학교육혁신센터 다음 트랙을 통해 기업체 요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트랙은 제주대 교수와 (주)다음의 임직원들이 겸임교수로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3학년의 현장실습과 4학년의 인턴십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산학협력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안철수 교수와 박경철 원장 초청 대담

“실패서 성공 배운다… 도전하라”

'미래에 대한 도전과 바람직한 리더십'을 주제로 한 안철수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박경철 안동신세계연합병원장의 특별 대담이 지난날 28일 아라뮤즈홀에서 열렸다.

박경철 원장은 "지금은 본인의 노력 여하로 성공·실패를 바라볼 수 없는 시대"라며 "고민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라며 요즘 사회에 대해 다소 진지한 질문을 던졌다. 안 석좌교수는 "내가 제일 고민했을 때가 의사를 그만두고 안 연구소를 차리려고 했을 때였다. 그때는 누가 답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고민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답이 찾아온다면서, 고민하는 것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박 원장은 "지식은 사회에서 획득하고 지혜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그럼 교수님은 성공하신 사람입니까?"라는 질문에 안 석좌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권력, 부만이 성공으로 대체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아니다"라며 "자기만의 성공 기준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사는 동안 삶의 흔적을 남겨놔야 그런 성공한 삶이다. 난 아직도 흔적을 남기고 있기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조언했다.

다시 박 원장에게 차례가 돌아왔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다음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스티브 잡스처럼 다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묻자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 때 한 연설이 그의 인생을 대변해주는 듯하다"며 매킨토시의 다양한 글씨체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지금 당장은 어디에 쓰이려는 건지 모르더라도 계속 해나간다면, 전에 접처럼 보이던 점들이 연결이 되더라"며 "지금 불확실하다고 느껴더라도 믿고 살아간다면 어떤 가에는 쓰일 것이다"고 안 석좌교수는 용기를 북돋아 줬다.

박 원장은 안 석좌교수의 말을 "내가 당장은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폭넓게 경험을 해보는 것이 후에 에너지·폭발력을 지닐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박 원장은 "지금 스펙 경쟁을



취업전략본부에서 주최한 안철수 교수와 박경철 원장 초청 특별 대담이 지난날 28일 아라뮤즈홀에서 열리고 있다.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질문한다.

"내가 카이스트에 있을 때 전과할지를 두고 고민하던 학생이 있었다. 강의 몰속도가 얼마나 빠르지 않겠냐면 강독에서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직접 신발, 양말 벗고 뛰어들어야 한다"며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제대로 내가 맞는 것을 알 수가 없다. 혹여나 실패를 하더라도 값진 경험이다"고 도전할 것을 주문했다.

안철수 석좌교수는 마지막으로 "No pain, no gain. 고통이 수반이 되어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던지며 안철수 석좌와 박경철 원장의 대담은 막을 내렸다.

정승우 기자

제주대병원 농촌지역 무료 봉사활동 나서

지난 2일 농업기술원과 협약식

제주대학교병원(원장 강성하)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에 무료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제주대병원은 지난 2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사무소에서 제주도 농업기술원과 농촌의료봉사 및 농업기술지원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두 기관이 의료복지시설이 미비한 농촌 지역을 직접

방문해 의료봉사활동과 함께 농업기술지원을 함께 진행해 건강한 농촌을 만들자는 취지 아래 진행되었다.

앞으로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연 2회 농촌 순회 방문을 기획해 제주대학교병원에서는 의료봉사활동을,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지원 및 농기계

수리 등의 활동을 펼침으로써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예정이다.

특히 두 기관은 행사를 진행하는 상가리에서 협약식 행사와 의료봉사 및 농업기술지원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협약에 관한 높은 실천의지를 보여주었다.

한편 이날 110여명의 상가리 주민들이 리사무소를 찾아와 내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치과 등 각 진료과별 교수님들로부터 진료 및 약제를 처방 받았다.

이밖에도 초음파 검사, 영양제 주사 주입, 물리치료 등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선배들이 말하는 제주대신문사, 당신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대신문사 58기 수습기자 모집

"제주대신문은 나의 뜻을 이루는데 최고의 경험이었다. 목표한 바를 이루고 뜻을 세우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도전해라."

김동주 KBS 제주방송총국장(77년 편집장)

"수레바퀴의 중심을 뜻하는 허벅족이 뜨고 있다. 쉬운말로 마당발 혹은 오지랖 넓은 사람을 말한다. '마당발' 제주대신문사로의 의미있는 선택 기대한다."

김범호 제주일보 논설위원실장(78년 편집장)

"중학교 때 가졌던 기자의 꿈을 제주대신문에서 키웠다. 그리고 지금 당당히 그 꿈을 이뤄냈다. 기사를 꿈꾼다면 제주대신문에 지원해라."

홍성추 서울신문 STV 대표(81년 편집장)

"남다른 미래를 원한다면 남다른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제주대신문사 활동은 당신의 미래를 누구보다 남다르게 만들어갈 것이다."

강명진 법무사(81년 학술부장)

"만약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이제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라. 제주대신문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할 기회가 될 것이다."

김경호 현대백화점 상무(82년 편집장)

"자신감은 최고의 성공비결이다. 대학신문사 활동은 당신의 자신감과 성공을 이끄는 경험이 될 것이다."

안창홍 제주시대 편집국장(83년 편집장)

"제주대신문은 대학으로 통하는 창이며, 대학을 비추는 거울이다. 학생기자로서 대학 역사를 기록하는 중대한 역할을 당신도 할 수 있다."

윤정용 제민일보 논설위원실장(83년 취재부장)

"대학시절 제주대신문을 만들어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냉철하게 마음을 키웠다. 내가 기억하는 대학신문사 활동은 값어치 매길 수 없다."

김계춘 한라일보 논설위원(84년 편집장)

"프로를 꿈꾸는 겁 없는 초보는 나를 선배라 불려도 좋다. 제주대신문사 기자를 선택한 그 순간 영광을 얻는 것이다."

김건일 제주MBC 보도제작국장(85년 편집장)

"그 시절의 열정과 환호, 방황과 좌절을 통해 내 삶의 방향이 정해졌다. 지금도 돌아가고 싶은,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김동윤 국어국문학과 교수(86년 편집장)

"와인은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어울리지만 삼겹살이며 탕수육을 접이는데도 안성마춤이다. 제주대신문동우는 그런 와인의 향기가 난다."

박훈석 제민일보 편집부국장(89년 편집장)

"90년대 초 대학생들의 옷깃에는 진한 최류가스의 향이 물었다. 세상이 바뀌었다 해도 시대의 조류를 뒤집을 수 있는 선택이 당신 앞에 있다."

김호천 연합뉴스 차장(89년 사진부장)

지원자격 : 10학번 신입생

원서접수 : 10월 29일(금) 6시까지

면접일 : 10월 30일(토)

문의 : 754-2277(편집국), 010-9944-6675(편집국장)

특전 : 장학금·원고료·취재료 지급

현직기자에게 배우는 기자교육, 실습

미국·일본·중국 등 다양한 국내외 취재

DSLR 사진교육과 MAC PC를 이용한 편집교육

전국대학 기자들과의 교류

- 제주대신문사 -

‘생리대 빼가는 행위’ 범죄로 인식해야

총여학생회 “근절 안되면 자판기 없애겠다”

총여학생회가 운영하는 생리대자판기의 생리대를 돈을 내지 않고 뽑아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생리대자판기는 학생회관과 일부 단과대학, 교양동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건물에 설치돼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 생리대자판기 코인기에 실핀을 꽂아 무단으로 생리대를 뽑아가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학내에 설치된 생리대자판기는 코인기에 1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넣어 코인기를 돌리면 스프링이 움직여 생리대가 나오는 원리로 되어 있다.

그러나 생리대자판기 중 일부 자판기에는 코인기에 실핀을 꽂아 돌려도 스프링이 움직이면서 생리대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고장’ 표시가 붙어있는 생리대자판기가 실핀을 꽂으면 생리대가 나오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인문대학의 한 학생은 “솔직히 동전이 없을 땐 한두번 실핀을 이

용해서 생리대를 뽑은 적이 있다”며 “남들은 실핀을 이용해서 공짜로 생리대를 뽑는데 나만 돈내고 뽑으면 그것도 억울한 일이다”고 말했다.

또 실핀을 이용해 생리대를 한꺼번에 여러개를 뽑아가버려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법정대학의 한 학생은 “이제까지 돈을 내고 뽑았었는데 다른 학생들이 실핀을 꽂고 뽑는 걸 보고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기분까지 들었다”며 “학교에 있는 생리대는 일반적인 생리대 가격보다 싼 편인데 그렇게 까지 하면서 공짜로 뽑아가는 건 너무나 것 같다”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전미희(윤리교육 3) 총여학생회장은 “원래 생리대자판기를 개인사업자가 관리했었는데 생리대자판기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며 “학생들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인데 학생들이 스



생리대자판기에서 돈을 넣지 않고 실핀을 이용해 무단으로 뽑아가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스로가 주인공인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전 회장은 또한 “먼저 ‘생리대자판기 악용 근절운동’을 벌여 학생들의 의식개선에 나서겠지만 학생

들이 생리대자판기를 계속 악용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자판기를 철수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의 의식개선을 당부했다.

박현 기자

제주대 중앙일보 대학평가서 47위

교육여건·재정은 4위… 취업률·교수연구는 빨간불

제주대가 지난달 28일 중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에서 발표한 대학평가에서 47위를 기록했다.

전국 93개 4년제 대학에 대한 대학평가에서 제주대는 교육여건 및 재정 상황은 양호한 편이나, 학생 취업률이나 교수 연구, 국제화 등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평가는 교육여건 및 재정, 국제화, 교수연구, 평판 및 사회진출 등 4개 부문 33개 지표(350점 만점)에 대해 이뤄졌다.

평가 부문별로 보면, 교육여건 및 재정 부문에서 제주대는 전체 대학 중 4위를 기록해 상위권에 올랐다.

교수당 학생수는 19.98명으로 전국에서 9번째로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수 확보율은 99.32%로 100%에 육박했다.

특히 학생 충원률은 10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재정 부문에서는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이 125.39%로 전국 3위를 기록했고, 세입 중 납입금 비중은 30.24%로 전국에서 7번째로 높았다.

교수연구 부문의 경우 교수당 논문 게재수가 낮아 전국에서 47위에 그쳤다. 인문사회 교수당 국내논문 게재수는 0.54편으로 67위를 기록했고, 교수당 SCI(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 게재수는 0.58편으로 37위에 올랐다.

국제화 부문에서는 전국에서 83위로 ‘글로벌 시대의 뉴리더’를 표방하는 제주대를 무색케 했다.

제주대의 전임 이상 외국인 교수 비율은 0.35%로, 89위에 올라 전국에서도 하위에 머물렀다. 해외 파견 교환학생 비율도 0.16%로 전

국에서 85번째, 영어강좌 비율은 0.60%로 77번째로 낮았다.

평판 및 사회진출도를 보면, 전국에서 62위에 그쳐 국제화 부문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제주대 학생의 취업률은 48.90%, 전국 69위로 나타났다.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을 묻는 질문에는 76위를 기록, 제주대 학생들이 인사 담당자들의 눈길을 끌지 못했다는 평가다.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이라는 물음에도 65위, ‘입학 추천하고 싶은 대학’에는 63위에 올라 대대적인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합평가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1위에 올랐고, 포스텍(POSTECH),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순이었다.

제주국어문화학교

오는 13일까지 모집

‘2010 제주국어문화학교’가 국어문화원(원장 강영봉 교수) 주최로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인문대학 2호관 1102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국어문화학교는 제주에 아름다운 언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무료로 운영되는 국어교육과정이다.

교육 내용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올바른 국어 문장 쓰기,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이다. 이와 함께 제주 사람들의 정신이 담겨 있는 제주어를 보존하기 위해 제주어 표기법과 제주어와 제주문화에 대한 강좌도 마련됐다. 강좌는 매주 금·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국어문화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싶은 도민과 학생은 오는 13일까지 국어문화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강생은 선착순으로 총 40명을 모집한다.

전화=064-754-2712, 홈페이지(<http://malgeul.jejunu.ac.kr>)

교수학습지원센터 ‘모다들엉 다독다독’

“Reader 만이 Leader가 된다”

16개팀 선정… 단순한 독서보다 토론때 지식 쌓여

선선한 바람을 벗삼고 알록달록 색깔을 감아입은 아름다운 캠퍼스를 배경으로 무엇을 즐기면 좋을까?

학생들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가 교수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다들엉 다독다독 독서 동아리’를 모집했다.

이번 ‘모다들엉 다독다독’은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해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 등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총 16개 팀이 선정된 이번 ‘모다들엉 다독다독’은 교수 1명과 3~4명의 재학생이 팀을 구성하고 각 팀별 주제를 선정해 독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팀은 각 팀의 독서 주제를 가지고 2시간 이상 독서 토론을 2주에 한번 씩, 총 4회에 걸쳐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팀 구성원 모두가 4회 이상 출석을 하면 JCTL 인증서도 주어진다. 그리고 지도교수가 매회 모임에 참석해 학생들

의 독서토론을 지도하며 모임이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 올려야 한다.

또 각 팀은 학습기간 중 2회 이상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한 학기에 최소 4권 이상의 독서를 해야 한다.

‘모다들엉 다독다독’에 선정된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 가고자 기대를 하고 있다.

허지훈(사회 2)씨는 “대학생이 돼서 책을 잘 읽지 않았는데 책 읽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며 “단순히 혼자 독서하기 보다는 교수님과 친구, 선배와 함께 하기 때문에 좀 더 뜻 깊은 독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민희(중어중문 3)씨는 “가을을 맞아 한번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평소 천하게 지내던 동아리 친구들과 평소 존경하는 교수님께 부탁드려 구성하게 됐다”며 “교수님의 추천으로 이슬람권이라는 주제로 선정했는데 우리 문화뿐만 아닌 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

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평소 교수학습지원센터 활동을 많이 하며 학생들에게 직접 제안을 해 함께 참여를 한 평동국(해양산업공학 전공)교수는 “점점 대학이라는 곳이 학생들의 취업 교육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보다 독서 습관을 기르고, 교양을 쌓으면 사고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이슬람 문화권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아쉬워 이슬람 문화를 주제로 하게 되었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관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팀에게는 60만 원 이내로 지원금이 지원되며 각 팀의 운영 경비 30만원을 2회에 나눠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은 선발된 동아리 오리엔테이션 후 1주일 이내로 지원되며 2차는 중간 컨설팅 후 1주 이내로 지원 된다.

김승지 기자



음팡발 밤거리 “감감”

○…음팡발 사슴상 피담

요즘 문화교류관 공사가 한창인 음팡발 밤거리에서 밤만 되면 사슴상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괴담이 있어.

알고 보니 음팡발 가로수길에 밤마다 가로등이 꺼진 상태로 어두침침하게 방치돼 엉뚱한 괴담까지 생겨난 것. 게다가 통행로 가로등은 공사안전펜스로 차양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

대학 구성원들은 “으스스한 밤길을 불빛하나 없이 걷기 무섭다”며 “안전사고도 우려되니 시급히 해결해주시기 바란다”고 한 목소리.

○…출석만 부르면 ‘순간이동’

수업시간에 출석만 부르면 학생들이 감쪽같이 사라져 교수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학생들이 출석 후 미리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업 마지막에 출석을 부르면 앞쪽들이 수업 끝나기 10분전에 들어와 수업을 들은 척 연기.

한 수업에서는 출석 후 학생들이 대부분 나가서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하지 못해 일찍 수업을 끝내기도.

외자에 학생들을 묶어놓을 수도 없으니 이제 스스로 ‘얼굴’해주시길.

○…교양동 인도 앞에 돌기둥

방치 교양동 인도 앞에 돌기둥 삼형제가 전세를 댔다는 소문, 집주인인 돌기둥의 텃새가 워낙 심해서 인도를 걸어다니던 학생들은 멀쩡한 인도를 바둑고 빙 돌아서 간다고.

원래 돌기둥의 역할은 자동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건만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 앞에 돌기둥 3개를 꼭 붙여 놓은 것은 무슨 심보인지.

돌기둥이 원위치를 찾아 가서 통행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줄여줬으면 하오.

제30회 백록문학상 및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언론미디어센터에서 제주대신문 창간 56주년을 맞이하여 제30회 백록문학상 및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제30회 백록문학상 공모

1. 응 모 자 격: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2. 응 모 분 야: 시(1인 5편 이상) 또는 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2010년 12월 3일(금) 18:00까지
4. 접 수 장 소: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 (취업전략본부 3층)
*백록문학상 응모시 원본 파일을 담은 CD(DVD)와 출력물을 동시에 제출
5. 발 표: 제주대신문 847호(2011년 1월 5일 발행 예정)
6. 시 상 내 역: 각 부문 당선작(50만원), 가작(30만원)
*단, 작품 수·작품의 수준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시상내역은 변동 가능 함

제30회 백록학술상 공모

1. 응 모 자 격: 제주대학교 재학생(대학원 박사과정은 제외)
2. 응 모 분 야: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외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출력물과 논문파일은 CD로 동시 제출,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음.
3. 시 상: 학부생/대학원생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당선작 각 1편: 총장상 및 상금 50만원, 가작 각 2편: 총장상 및 30만원
4. 심사 및 시상: 심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5. 접 수 마 감: 2010년 12월 6일(월) 18:00까지
6. 당 선 작 발 표: 2011년 신년호

제주대박

공짜 샘플 파전, 계란찜, 갈비찜

고기만 드셔도

생맥주 공짜!

삼겹살, 갈비살, 갈비정살, 돌판갈비찜, 돌판닭찜

시청

아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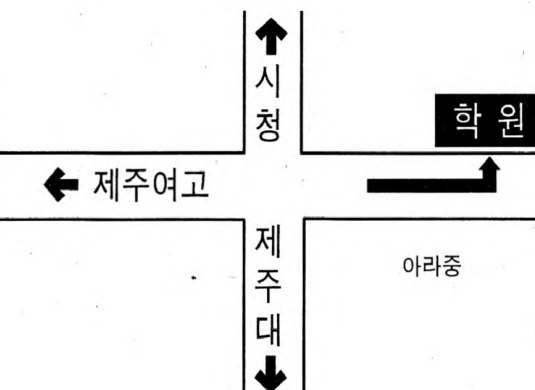
제주대박

제주시 이도2동 1769-1 T. 759-2382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 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셔틀버스 운행: 제주대 ↔ 학원(08:30~17:00)
매시 30분 제주대 정문앞 출발
- 주말교육 가능 ○ 필기시험 교재 배부



제주시 아라2동 1320 (제주여고 입구 동쪽)
전화: 755-9900

제주여고 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 셔틀버스 운행

골프장은 제주도에서 무엇인가?

‘골프장 홍수’의 경고, 우리는 아는가

개발 남발로 도내에만 28개... 지하수 낭비에도 농약 사용량도 해마다 증가

지난 9월, 한림읍 금악리 평화로 변에 있는 18홀 규모의 아덴힐리조트 골프장이 개장했다. 제주도에서는 28번째로 운영되는 골프장이다. 이로써 인근의 라온, 블랙스톤, 케슬랙스, 아덴힐, 타미우스(구.로드랜드), 나인브릿지, 엘리시안, 에버리스 골프장 등이 연속적으로 들어서 있어 제주도 서부 중산간 지역은 해발 150m에서 700m까지 약 13km 정도가 골프장지대로 뒤덮이게 되었다.

그러나 골프장은 앞으로 더 들어설 예정이다. 오라관광지구, 이어도(구와 덕천), 스프링데일(남원 위미) 등 3개의 골프장이 사업허가를 받아 건설 중에 있고, 서귀포관광리조트(서귀 서흥), 내소날(안덕 동광), 블랙나이트(안덕 동광) 등 3개의 골프장이 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그중 블랙나이트 골프장은 김태환 도정 말기인 지난 5월말과 6월초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도의회 동안 통과까지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은 시간에 허가절차가 속전속결 진행되었고, 제주도지사의 최종개발사업허가만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우근민 지사의 도정인수위원회에서는 사업허가를 보류하라고 요구해, 김태환 지사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못자랄 투수성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의 추가 지질조사에 대한 검토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오는 10월 블랙나이트 골프장에 대한 개발허가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계획된 골프장이 모든 건설되면 제주도에 34개의 골프장이 들어선다.

일반적으로 18홀 규모의 골프장 한 곳을 지으려면 제주대학교 아라캄퍼스 만큼의 면적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골프장 입지는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다. 그런데 중산간 지대는 숲과 꽃자왈, 초지로 이루어져 있어 한라산과 해안가로 이어지는 제주도 생태축의 중심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하수의 대규모 함양지대다.

그래서 이런 곳에 골프장을 건설하면 대량의 토사를 깎고 쌓으면서 지형·지질이 험악하고, 수목축산 뿐만 아니라, 곤충과 새, 노루 등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된다. 특히 팔색조와 삼광조와 같이 멸종위기 희귀조류들은 주로 중산간의 하천 주변에 많이 서식하는데, 이

런 곳에는 이미 많은 골프장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먹이를 구하거나, 번식을 하는데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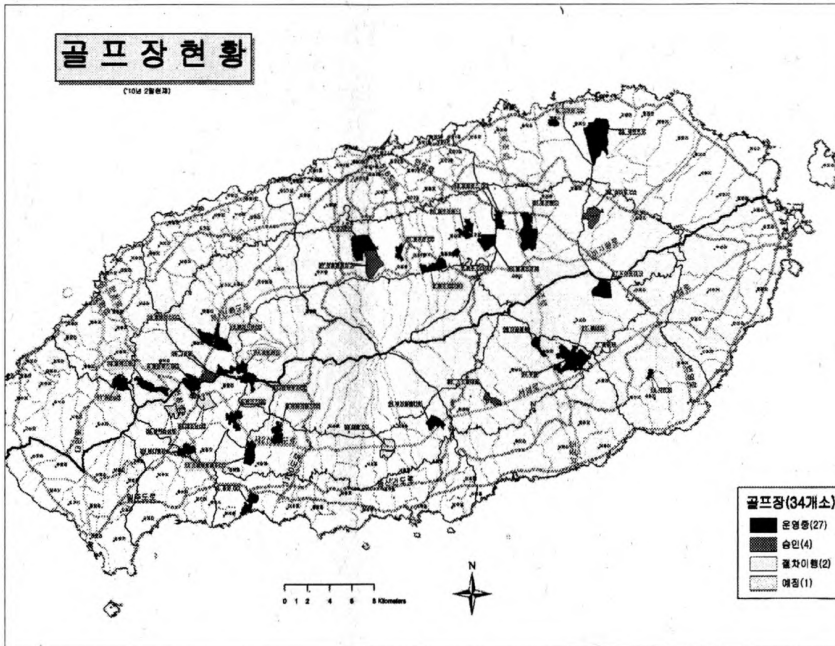
또한 중산간 지대는 비가 많이 오는 데, 골프장 잔디 밑에 시트를 깔아버려 땅 속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하류의 토사유출 및 수해발생도 증가시킨다.

2007년 태풍 ‘나리’ 내습시 중산간 지대였던 남원을 하례2리는 실촌 400여년 만에 처음으로 수해를 입었다. 인근 돈네코의 우리들메디컬 골프장을 만들면서 마을을 관통하던 효례천으로 빗물의 유출구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말했다. 또한 올 여름 태풍 덴루 내습시 제주시에 한천 저류지에서는 35시간 만에 100만 톤의 빗물이 지하로 함양되었는데, 저류지 건너편에서는 오라골프장이 있었다. 어마어마한 빗물을 함양시킬 수 있는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은 그 만큼 수해발생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골프장은 지하수 함양도 막아버리지만, 오히려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아 쓰기도 한다. 2008년 기준으로 제주도 내에서 지하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먹는 샘물 ‘삼다수’지만, 나머지는 골프장이 압도적으로 많고 관광호텔 등이 뒤를 잇는다. 상위 20위 업체 중 12개가 골프장으로 일평균 500톤에서 많게는 1,000톤 이상을 사용한다.

골프장의 잔디는 대부분 외국산이어서 제주도의 환경과 맞지 않으므로 이를 키우기 위해 농약도 대량 사용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제주도 골프장의 연간 농약사용량은 ha당 평균 18.91kg으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치 12.04kg에 비해 57.1% (6.87kg)나 많게 뿌렸다. 또한 2007년 31.7% (4.06kg), 2008년 8.6% (1.28kg), 2009년 17% (2.04kg)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골프장 건설과 운영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심각하지만, 제주도지사는 한 번도 골프장을 불허한 적이 없다. 1979년 8월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오라골프장에 이어 1980년대에는 제주컨트리클럽과 중문골프장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4곳의 골프장이 추가로 개장해 20년 동안 7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제주도내 골프장은 20개 이상 급격하게 늘어났다. 운영 중인 28개 골프장의 총면적은 33,730,887㎡, 홀수는 726홀이나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 현황.

단기간에 골프장이 급증하다 보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골프장의 영업이익률 평균은 수도권 +17.35%, 충청권 +20.25%, 호남권 +19.45%, 영남권 +22.28% 등 육지부는 경영성과가 높았는데 비해, 제주도는 -24.63%로 단 한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제주지역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2004년에 비해 5년 사이 절반으로 폭락해 (-42%), 올해 들어 제주도내 몇몇 골프장은 입회금 반환 소송에 휘말렸다. 그런데 사업자들은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을 이미 공사비로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내줄 수 있는 돈이 없다. 붓물 터지듯 입회금 반환청구가 되면, 경영적자보다 엄청난 금액을 한꺼번에 내줘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내 골프장은 도산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는 그나마 골프장 개발제한 기준이었던 문화관광부 고시 '총 임의면적의 5%이내 가능'마저 2008년 6월 폐지해 버렸고, 이제는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 마음대로 총임의면적 대비 5%를 초과해서도 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되었다.

도지사가 마음대로 골프장 개발허가를 내줄 수 있어서 인지 몰라도 골프장 허가과정에서 정치인 및 전문가들과 연계되는 사업자들의 비리는 지역사회를 타락시키고 있다. 2008년 말 제주사회를 뒤

흔든 환경영향평가 비리사건의 경우, 올해 2월 1심판결이 있었는데, 제주대학교 이모 교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3000만원을, 손모 전문가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중 이모 전 교수는 10월에 있을 2심판결을 앞두고 지난 8월 보석이 취소되고 또 다시 구속되었다.

골프장 사업자는 전문가 뿐 아니라 권력층에게까지도 뒷돈을 건넸다. 김태환 전 도지사 친척 김모씨는 지난 2006년부터 골프장 조성사업 인·허가 과정에 사업자 2명으로부터 5억 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 2010년 1월 구속되었다. 김우남 국회의원도 지역구의 골프장으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는 물론, 뇌물수수과 비리가 판치는 제주도 골프장 개발은 이제 과잉공급되어 경제성도 잃어가고 있다. 더욱이 국·공유지를 싼 값에 넘겨줬고, 각종 조세부담금을 감면·해줬는데도 골프장에서 일하는 도민들도 대부분 비정규직일 뿐이다. 따라서 골프장 개발 중심의 제주도 관광정책을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때다. 그렇지만 골프장 내장객의 40%가 제주도민이라는 사실로 보건대, 위와 같은 골프장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듯하다.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김창인 회장 『실천철학』 출판기념회

“큰 꿈을 품어서 기개를 떨쳐라”

출판기념회에 800여명 대성황



지난 2일 오후 라마다호텔 2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김창인 회장 『실천철학』 출판기념회에서 내빈들이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양우철 한림 향우회장, 송봉규 한림공원 회장, 양동진 상임자문역, 허향진 총장, 고충석 전 총장, 김동주 KBS제주방송총국장).

대학 발전기금으로 135억원을 쾌척한 재일제주인 김창인 회장의 『실천철학』 출판기념회가 지난 2일 오후 6시 라마다호텔 2층 대연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허향진 총장, 고충석 전 총장, 양우철 한림 향우회장, 양동진 제주대 총장 상임자문역, 허창기 제주은행장, 김상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김인택 김해김씨 좌장승공과 종친회장 등 800여명이 참석,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이 책은 김창인 회장의 생애에 걸친 도전 정신과 기업가 정신, 삶의 궤적 등 인생철학이 고스란히 담겼다. 김창인 회장은 『실천철학』에서 “원리란 진정한 천지의 도리이며, 숭고하고 존귀한 천의천명(天意天命)”이라며 “원리에 근거한 진실 추구와 실천추구가 없는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설교했다.

김 회장은 또 ‘천지신명과 조상의 덕을 강조하고, 부모·형제·가족 간의 순수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자신의 모든 철학이 수목에서 비롯됐다. 질서의 세계, 무욕의 세계, 평화의 세계를 꿈꾸는 사람이란 수목에서 배워야 한다. 나무와 같은 불변을 지니고 청렴·정직·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슬회

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제주의 젊은이들이 풍요 속에서 나태해가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았다. 나무는 부자유속에서도 사계절의 질서를 어기지 않는데, 인간은 자유를 만끽하면서 도 원칙을 어기고, 함부로 행동하며 혹은 낙약해져서,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서 “한길로 매진하는 수목에서 늘 부자유속에서도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나무를 보면서 깨달았다. 우리 젊은이들이 자유를 제대로 느껴보고 큰 꿈을 품어서 기개를 떨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향진 총장은 기념사에서 “김창인 회장님의 ‘실천철학’은 그동안 우리가 등한시했던 인성을 깨우치는 청량제 같이 느껴진다”면서 “『실천철학』 전문을 대학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책의 내용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총장은 또 “이번 출판기념회가 생명윤리와 인간윤리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고,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에 물든 현대문명의 병폐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새롭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다소나마 이바지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정용복 대기자

시민네트워크와 통하다 ③제주여성인권연대

‘편견·어둠’ 여성에 희망의 등불로

“이제 시야 넓혀 여성문제 관심 가질 때”

거친 파도와 온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제주해녀. 역사는 제주 여성을 ‘강인한 어머니’ 이미지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주 여성의 삶 이면에는 가부장제 사회 속 일상적인 폭력과 버거운 노동을 참아내야 했던 슬픔이 있다. 이는 그저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니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여성인구 1000명당 가정폭력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제주는 평균 0.77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오늘날 제주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과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제주여성들이 일상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다. 바로 제주여성인권연대(이하 인권연대). 그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달 15일 인권연대 사무실을 찾았다.

인권연대는 1995년 제주여민회 부설 제주여성상담소로 처음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06년 6월에 독립된 기관인 ‘제주여성인권연대’로 문을 열었다.

고명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소장은 “모두가 함께 웃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여성이나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사

라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인권연대는 이를 위해 부설 기관으로 ‘제주여성상담소’, ‘여성의 쉼터 불력’, ‘현장상담센터 해냄’, ‘성·인권교육센터 SING’을 두고 있다.

특히 ‘제주여성상담소’는 제주가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가정폭력 등에 대한 상담을 담당한다. 더불어 여성문제에 대한 연구, 교육, 출판 등의 사업을 통해 제주를 성평등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고명희 소장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지만 마음의 상처를 쉽게 치유하지 못한다”며 “상담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돕고, 다친 몸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피해여성이 형사적 고소를 원할 때에는 상담소 직원이 동석해 피해사실 전달을 돕는다.

‘여성의 쉼터 불력’은 성매매피해 여성들이 공동체 이루어 생활하는 곳이다. ‘불력’이라는 말을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나와 불을 피워놓고 밥을 먹이는 지리를 뜻한다. 해녀들의 차가운 몸을 녹이는 ‘불력’처럼 ‘여성의 쉼터 불력’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차갑게 굳은 마음을 따스하게 치유한다.

이들의 입소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이다. 불력에 입소한 여성들은 전문 상담원에게 상담을 받고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마음을 치유해간다. 이곳 여성들은 직접 천연 비누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직업프로그램을 거처며 자립도 준비한다.

고명희 소장은 “피해여성들이 사회에 적응해 자신의 삶을 일궈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불력의 설립 목표”라며 “단순한 수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살아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권연대의 ‘현장상담센터 해냄’은 성매매 여성을 위한 상담과 법률적·의료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해냄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꿈을 찾아가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해내다’라는 뜻이다. 이들은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도 벌인다.

성매매, 성폭력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맡고 있는 부설기관도 있다. 바로 ‘성인권교육센터 SING’. 이곳에서는 성교육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유아와 초·중·고등학교, 장애인, 성인 등 대상별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으로는 성교육캠프를 비롯해 청소년 성



제주여성인권연대가 성매매 방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가해 예방교육 등이 있다.

고명희 소장은 “여자가 밝게 다니지 않고 옷차림을 조심해도 피해사태는 줄지 않는다”며 “성폭력은 보통 피해예방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가해 예방’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인권연대는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 읍면을 순회하며 ‘안전한 마을 만들기’ 캠페인과 교육을 벌이고 있다.

고명희 소장은 “보통 아동성폭력은 아동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사회가 요구한다”며 “그러나 아동이 보호시스템 없이 스스로 몸을 지키는 힘들다”고 말했다.

여성 등 소수자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권연대의 움직임이 아름답다.

고용희 기자

열량과 체중 조절

고열량 스낵 섭취 위험천만... 살 빼려면 운동과 친해져야



강정숙 식품영양학과 교수

“어떤 사람은 엄청 먹고도 살이 안찌는데 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자신의 비만에 대해 억울함을 느낄 때 보는 불평이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라면 몸은 열량에 대해 대체로 정확하다. 먹은 양이 소모량보다 많을 경우 내장이든 피하든 지방축적은 불가피 할 터이고 대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몸은 부지런히 꺼내 사용하리라. 손에 잡히는 엉덩이나 허리살이 지방층이라 생각한다면 지방은 적게 먹는 대상이 되고 몸에 붙어 있는 지방은 무조건 싫다. 하지만 세포-생리학적으론 따져볼 때 지방만큼 우리 몸에서 중요한 물질도 없기에 열량이나 체중을 논하기 전에 일단 지방에 대한 거부감을 지울 필요가 있다. 농축된 에너지원이나 기온변화에 대한 절연체, 프로스타글란딘 생성 물질 등 감지되는 역할은 접어두고 세포막이 두겹의 지방층이란 걸 생각한다면 이것 없이는 생물체 자체를 생각할 수 없다. 적정량의 체지방 축적과 최소한의 체중(critical weight)은 또한 성숙성(sex maturation)에 필수적이다. 사춘기 시작(onset of puberty)이나 배란(ovulation)의 유지는 체지방과 체중 등 신체적 요건을 전제로 한다. 하루 종일 엉겨 움직이는 내장의 기관들이 지방층으로 둘러 싸여 있지 않다면 곧장 닳아 없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필요한 얇은 지방층이 말병의 내장지방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도 해본다.

지방세포 및 비만유형

지방세포는 현미경 관찰에서부터 일반 세포와 다른데 소멸직전의 핵과 세포질을 가득 채운 중성지방으로 인해 일반 세포와는 달리 희게 보인다. 어릴 때 비만을 시작하면 지방세포는 부지런히 분화하여 그 개체수가 많은 지방세포(hyperplasia)를 형성하는 반면 어른이 되어 비만에 진 경우 굵기가 큰 지방세포(hypertrophia)를

형성한다. 체중을 감량해도 한번 만들어진 지방세포는 그 개체수가 감소하지 않는데 이어서 어릴 때 시작한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가기 쉽다. 비만은 체형에 따라 그 위험성을 짐작할 수 있다. 사과형으로 분류된 삼체비만은 허리둘레가 턱없이 큰 성인비만의 전형으로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등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이 커서 유산소 운동으로 내장지방을 줄이는 게 상책이다. 하체비만으로 분류되는 조롱박처럼 생긴 사탕배형 체형은 짧은 층에서 자연스럽지만 다소 과하게 허벅지나 엉덩이에 살이 붙은 경우로 건강에는 그다지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른 비만이란 겉으로 마른체형이지만 내장지방이 두껍고 짧은 당나소 고지혈증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스낵을 먹으면서도 식사는 거부하고 그러면서 운동을 싫어하는 대책없는 젊은 여자에게 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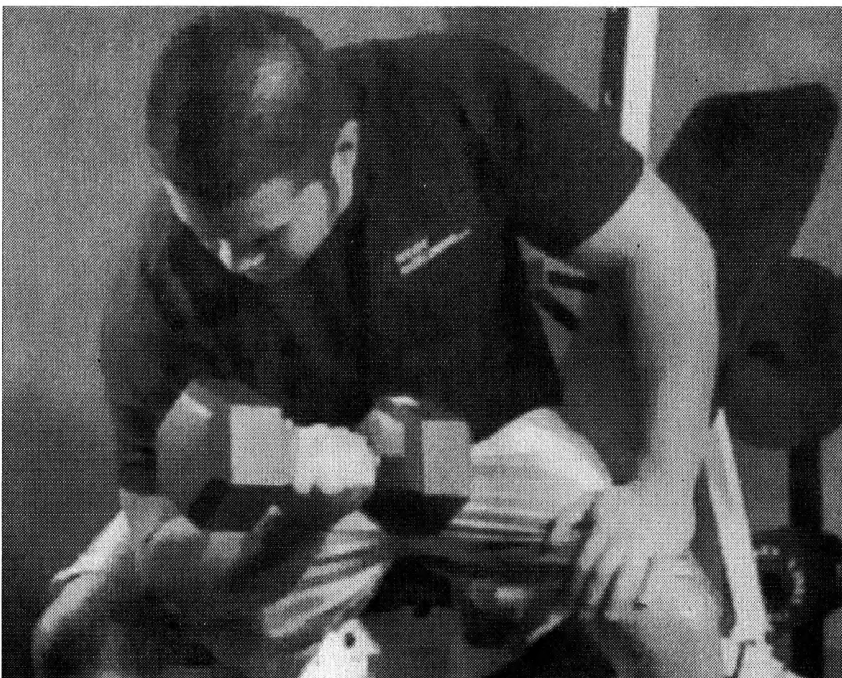
비만의 발생학적 이론

비만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수반되는 질병이나 후유증이 심각한 만큼이나 비만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궁금해한다. 어디까지나 이론(theory)이긴 하지만 비만의 발생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세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Glucostat theory(항당기설)은 시상하부의 VMH(ventromedial hypothalamus) 영역에 존재하는 만복감 중추(satiety center)와 LH(lateral hypothalamus) 영역의 배고픔 중추(hunger center)가 포도당농도를 감지하는 화학적 수용체에 의해 상반되게 활성화됨으로써 식욕이 조절되고 과식을 막는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VMH에 있는 만복감중추의 손상이 병적인 비만환자를 만든다는 설명이다.

Setpoint theory(세트포인트설)에서 신체는 본질적 또는 유전적으로 설정된 범위의 체지방(fat storage)이 있고 이를 지키려는 기질에 의해 대사율, 식욕, 식습관까지 조절된다. 수천 수만년을 척박한 지역에서 생존해 온 우리의 조상은 대사를 줄이는 절약형 유전인자를 물려주었고 이어서 유럽인에 비해 동양권 사람들이 과식에 대해 더 취약하다는 주장이다. 적게 먹는 경우 우리의 몸은 기초대사량을 낮추어 체지방을 보전하게 된다는데 임신 중의 지나친 다이어트는 태어난 아기를 비만하게 만든다고 한다.

Brown fat theory(갈색지방설)은 지방세포에 중성지방과 함께 미토콘드리아가 밀집해 있음으로 해서 갈색으로 보여지는데 갈색지방의 존재는 지방축적이 없는 박쥐에게서 확인되고 있다. 지방세포에 지방을 에너지화하는 기구인 미토콘드리아가



근육량을 증가시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은 건강하게 살을 빼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함께 존재함은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특이체질을 설명하기로는 괜찮은 이론이다.

열량 필요량과 기초대사량

몸이 필요로 하는 열량은 크게 기초대사량(BMR: basal metabolic rate), 특이동적열량(SDA: special dynamic action) 그리고 활동에너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기초대사량은 호흡, 순환, 근육의 tone유지 등 살아있기 위한 최소한의 열량을 말하며 지적, 정서적인 뇌의 활동도 배제된 것이다. 특이동적열량은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에 관련하여 효소의 분비나 연동운동에 지출된 비용으로 대강 필요 열량의 10%정도 해당된다. 활동에너지지는 노동이든 운동이든 신체적 활동은 물론이고 고도의 지적활동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활동의 강도와 지속시간에 따라 달라져 개인차가 크다. 기초대사량은 체중 킬로그램 당 한 시간에 1칼로리(1kcal/kg/hour)을 소모함으로써 1일 기초대사량은 쉽게 본인의 체중에 24시간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추정된 기초대사량은 대개 필요한 열량의 2/3를 차지하는데 중증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루 1400-1600칼로리 정도는 되지 않을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많은 열량이 소비된다. 생각하면 신나는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치에 한계가 있다. 근육이 잘 발달된 운동선수와 비만이 심한 어떤 중년남자가 같은 체중을 갖는다면 추정된 기초대사량은 같게 나온다. 기초대사를 위해 열량을 사용하는 조직은

근육이지 지방이 아니다. 사실상 운동선수수는 추정치보다 훨씬 많은 기초대사량을 지출하는 반면 비만의 중년남자는 추정치보다 적은 양을 사용하고 있다.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라면 기초대사량으로 지출되는 열량이 높아 이미 체중을 내리기 위한 유리한 입지에 있다. 근육량을 증가시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은 건강하게 살을 빼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체중, 열량치 그리고 다이어트

체중 1킬로그램은 열량으로 얼마나 될까? 계산상 편리하게 열량 7000칼로리(kcal)는 체중 2파운드로 간단하게 정리된다. 체중감량을 결심한 사람이 필요한 열량보다 하루에 500칼로리 적게 먹고 산다면 2주일이면 7,000칼로리에 해당하는 2파운드(0.9킬로그램)의 체중감량이 가능하다.

2주일에 고작 0.9킬로그램, 하지만 적어도 기초대사량 수준의 식사는 해야 지속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하다. 심하게 시작하다간 음식을 갈망하는 우리 몸이 폭식을 원하게 되고 결식과 폭식을 반복하다가 요요현상만 경험하면서 다이어트는 결국 실패하게 된다. 결식에 더욱 민감한 우리의 몸은 기초대사율을 계속 낮게 잡게 되고 폭식한 열량은 허리살로 나타날 게 아닌가. 한달에 5킬로그램 감량, 하루에 500칼로리도 안되게 먹고 500칼로리보다 더 뛰었다는 뜻인데 비정상적인 약물요법을 동원하지 않았다면 이는 수퍼죽에 속한다.

한권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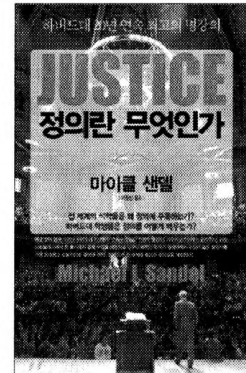
공유된 가치를 합의해야 정의사회

“합의 안될수록 더더욱 토론해야”

2002년도 학부시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정치에 대해 생각해보기회를 주기 위해 신입 후배들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물었던 적이 있다. 한편으로 얼마나 다양한 답변이 나올까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제도권 정치에 초점을 맞추며 조금씩 다른 언어로 답변했다.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치참여에 대해 강조했었다. 당시의 후배들이 지금 얼마나 정치에 참여하고 있을지, 그리고 당시의 생각이 얼마나 변해 있을지 알수는 없다.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라고 묻게 된다면, 아마 정치에 대한 편입론적 답변보다 더 나았을 거라 생각해본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샌델 교수가 독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질문했다면, 서로 충돌하는 이견들이 제시되며 각자의 정의를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자신과 가족, 친구, 공동체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무엇이 좋은 삶이고 공동선인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그만큼 정의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다를 것이다. 학생 체벌은 금지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허용되어야 하는가? 게임 중독, 범죄, 살인에 따른 사회적 비용보다 재정증대로 인한 제주도의 경제적 이익이 크므로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성폭력 흉악범죄자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 거세해야 하는가? 부유세 도입에 반대하는가? 모병제에 찬성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 찬성과 반대로 쉽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 이유에 대해 물어보면, 아마 서로 다른 이유들이 제시될 것이다. 현대사회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생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주어지면, 무엇이 좋은 삶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샌델 교수는 현실문제에 대한 우리의 판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지음 / 김영사

단과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절대적 원칙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정의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통해 이상의 힘으로 독자와 대화하면서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이 책이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선물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샌델은 독자가 가까이 정의(Justice)의 의미를 찾는 철학 여행을 나서길 바라고 있다. 이 여행 길에 만나게 되는 아리스토텔레스, 벤담과 제임스 밀, 로크, 칸트 등 철학자들과 대화하게 될 것이다.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자는 행복, 자유, 미덕이라는 3가지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저자는 여러분에게 정의에 대한 제3의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미덕과 공동선이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선물이라 여겨도 좋다.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서 ‘정의란 무엇인가’고 자문해 보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우리가 통굴의 포로, 정치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열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 믿는다.

김명선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지역경제 바로알기 ③공정여행 2탄

“발리, 원주민과 여행객이 어울리는 체류관광으로 주목”

‘에코투어리즘’ 대중화에 앞장선 여행기업 성공사례

공정여행은 90년 이후 빠르게 성장했고 지금은 매년 20~30% 정도 성장하는 추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공정여행이 내년에 전 세계 여행시장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그 규모는 약 643조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세계적인 여행 트렌드가 현지인에게 도움이 되고, 환경과 자연을 지키며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여행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소비 위주가 아닌 관계 위주의 여행이다.

해외에서는 투어리즘 컨선(Tourism Concern)이라는 NGO 단체와 2001년 영국에서 설립된 리스 판서블 트래블닷컴(Responsibletavel.com) 등이 가장 주목받는 공정여행 단체로서 리스판서블트래블닷컴의 경우 연 성장률이 10% 정도이다.

외국의 공정여행

경향신문의 지난 8월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발리에는 서구에서 고안된 공정여행의 개념이 발리에 심어졌기 때문이다. 발리 사람들의 성장에 이미 배어있다고 말한다.

발리 안의 키아단 마을은 에코 투어리즘 네트워크(JED)에 속하는 공정여행 마을 중 하나로 영국의 리스판서블트래블닷컴은 이곳을 최고의 홈스테이 여행지로 소개할 정도로 공정여행지로서는 국

제적으로 평평이 나 있다.

실제로 제주도의 3배 면적인 발리는 관광시설을 만들기 위해 매년 수백 헥타르의 농경지를 잃어가고 있다. 또 관광산업의 부산물로 생기는 각종 폐기물로 농업용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기도 하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발리는 여전히 관광을 필요로 하지만, 종전과 같은 관광문화로는 지속가능한 삶을 이어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사라져가는 농경지에 대한 위기감으로 키아단 마을은 공정여행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을의 구획지로부터 각종 동식물의 분포지역을 꼼꼼히 파악한 후 여행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즉, 관광을 위해 마을을 개조한 것이 아니라 마을의 주산업인 농업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을 선택한 것이다. 이곳 사람들은 각기 관광 안내인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는 부업일 뿐, 본업은 여전히 농부다. 주민들은 숙박·조리·안내·공연팀으로 각각 역할을 나눠 농사일을 하며 틈틈이 공정여행객들을 맞는다. 여행객을 많이 받지도 않는다. 그로 인해 마을 전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서 몸집이 커진다면 기존의 관광과는 달리지는 게 아니라, 작지만 ‘지속가능하게’ 여행객들을 맞을 때에 공동 관개시설 및 가정용 우물을 확충할 수 있었다.

발리에서는 트래블러맵에서 추천한 공정여행

지 중 한 곳이다. 캄보디아의 작은 마을인 반피아 이 초창기에는 화려한 호텔도 없고 빗물로 샤워를 해야 하는 현지 홈스테이와 재래시장 뿐이지만 여기서 생겨난 모든 이익은 기존의 관광 수입처럼 외국계 기업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의 생활비와 마을의 발전기금으로 쓰인다. 이렇게 모인 마을 공동체의 기금은 30여년에 걸친 내전으로 폐허가 된 캄보디아의 복지, 의료, 교육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여행객들은 자신의 소비가 바로 현지인들에게 돌아가는 과정을 보며 공정여행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여행이 세상을 바꾼다

이러한 국내외 공정여행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은 않다. 먼저 높은 가격이 걸림돌이다. 공정여행 사이트에서 추천한 여행상품의 가격을 보면 인도네시아 발리 상품은 168만원이다. 아무리 관심이 있다 해도 기존 가격에 익숙한 일반 여행객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 따라서 상품을 찾는 여행객은 주로 사회이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나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여행신문에 따르면 성장률이 높다는 영국의 리스판서블트래블닷컴도 시장점유율로만 보면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정여행을 담



당하는 업체들은 유통할증료 불포함, 각종 옵션, 팁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것이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정여행은 소개된 패키지보다도 자신이 직접 여행지에 대해 공부를 하고 찾아가는 맛도 있기 때문에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다.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여행은 분명 큰 즐거움이고 공정여행은 그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공정여행이라고 여행 내내 지구온난화에 대한 걱정과 책임, 공정정의식만 느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는 공정여행에 낯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다. 여행은 여행이지만 자신의 생활습관에 맞춘 여행의 편안함이 그 지역민들에게 불편함으로 다

가설 수 있으며, 그 수익이 정당하게 돌아가지 않음에 대한 대안으로 출발한 것이 공정여행이다.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여행지에서 참다운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공정여행이다. 게다가 아름다운 여행지의 경관을 지키는 지속 가능한 ‘생태 여행’이라는 점과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며 여행의 즐거움을 찾는 ‘윤리적 여행’은 여행자 스스로를 뿌듯하게 할 것이다. 공정여행은 지구와 지역경제를 살리며 희망을 찾는 나눔여행이다. 공정여행을 통해 소비로 끝나는 여행이 아닌 또 다른 관계가 이어지는 여행. 이 관계가 지역과 지구를 살릴 수 있다. 여행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효형(인문홍보 4)

기업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④ 넥슨네트웍스

“열정 넘치는 나만의 자기소개서, 취업문 연다”

제주로 이전한 게임업체 1위 기업 넥슨… 24일까지 인턴사원 선발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넥슨은 국내 최초의 그래픽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를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카트라이더 등의 서비스 게임을 통해 지난해 게임 업계 매출 1위를 기록한 대한민국 대표 게임 제작, 배급회사다.

넥슨네트웍스는 넥슨의 자회사로 넥슨이 운영하는 28개 게임의 고객센터 서비스와 게임운영 서비스, PC방 유통 서비스 등을 도맡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고객상담과 게임운영 등 고객과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넥슨의 이미지를 전파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넥슨네트웍스는 지난해 7월 제주 고객지원센터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제주에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제주 고객지원센터는 서울 역삼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와 함께 넥슨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서비스와 관련한 전화 상담 및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넥슨의 고객지원센터는 서울과 제주 두 곳에 있다.

넥슨네트웍스의 사회공헌활동은 ‘어린이와 같이 기쁜’, ‘어린이의 마음으로 행복하게’라는 뜻을 가진 ‘동동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어린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에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다양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이러한 사회공헌은 제주에서도 활발하다. 지난 6월에는 제주 서귀포시 중문면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인 ‘행복한 홈스쿨’ 어린이 26명과 함께 승마체험, 테마파크 체험 등 제주 문화 체험 행사를 가졌다.

또 7월에는 서귀포시 ‘섬속의 지역아동센터’에 도서 6백여권과 책장 10개를 전달했으며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아이들과 함께 책장을 꾸미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제주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게임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경력설계를 할 수 있도록 커리어 컨설팅 프로그램을 후원할 계획이다.

제주를 위한 기업으로 나아간다

넥슨네트웍스는 수시채용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입사를 위한 가장 큰 등용문은 인턴제도다. 매년 상반기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인턴십을 통해 채용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넥슨네트웍스 인턴십은 여타 다른기업과 다르게 상담수 인원이 인턴을 통해



넥슨네트웍스의 사회공헌활동인 ‘동동이’.

채용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올해 상반기에도 32명의 인턴사원 중 26명이 넥슨네트웍스에 식구가 됐다. 또 인턴 사원에 게도 연차휴가, 단체 상해보험, 실습비 지원 등 일반사원에 준하는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알찬 인턴십 제도 활용하자

또 다른 특징은 제주지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인턴 교육과정을 진행해서 즐겁게 인턴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턴십은 실무체험, 교육, 그룹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어 단순 업무가 아닌 진짜 실무를 체험할 수 있다. 그룹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턴십을 하는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좋은 추억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 또 단순히 직무교육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커리어 컨설팅, 비즈니스 마인드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이를 통해 업무과정 외에도 자기개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인사팀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인턴십은 단순히 직무 교육에서 끝나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맞는 직장과 직업을 찾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짜여 있다”며 많은 학생들이 인턴십에 도전하길 바랐다.

수시채용의 경우는 △게임, 웹 등을 운영하는 운영사업 부문 △고객상담이나 운영지원 등을 담당하는 고객지원 부문 △사업지원, 인사, 재경, 총무 등의 업

무를 맡는 경영지원 부문 △PC방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서비스지원 부문으로 나뉜다. 채용과정은 일반적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프로그램매, 디자이너, 기획 등 일부 직무분야는 과제시험도 진행한다. 면접은 팀면접, 직군면접, 인사팀면접으로 나뉘어 있다. 넥슨네트웍스의 채용 특징은 입사 시 필수 지원자격 등의 조건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을 알고, 기업을 알자

넥슨네트웍스 인사 담당자는 “학점, 영어, 자격증 등의 보여지는 수치만으로 지원자를 평가하지 않는다”며 “지원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열정”이라고 말했다.

채용과정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원한 분야에 대해서 명확한 지원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지원 분야에 맞춰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준비해 왔는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인사팀 관계자는 “자기소개서는 자신이 그 업무에 왜 필요한가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업무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신입사원이라면 신입사원답게 도전적이면서도 밝

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면접에서는 기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자신이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만큼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넥슨네트웍스는 상담이나 게임운영 등 고객을 주로 상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

인사팀의 관계자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며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할때도 그 이야기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해서 사람들의 공감을 이끄는 능력도 중요하다” 강조했다.

넥슨이 게임회사다 보니 넥슨 게임을 잘해야 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인사팀의 관계자는 그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게임을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며 “자신도 게임치라고 불릴 정도로 게임을 잘 못한다”고 답했다.

넥슨네트웍스는 게임회사인 만큼 게임, 즐거움, 젊음의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딱딱한 정장에 구두가 아닌, 가벼운 청바지와 티셔츠의 편한 차림으로 일할 수 있으며, 사내 카페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다.

내가 선택하는 복지혜택

넥슨네트웍스는 복지혜택도 개성과 젊음이 넘친다. 자신에게 맞는 복지혜택을 선택해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일정한 포인트가 들어있는 복지카드를 제공해 자기개발, 운동, 여행, 문화생활, 자녀 양육 등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고 지원범위도 설정할 수 있다. 또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3년차마다 지원금과 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론도 등도 지원된다. 이외에도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넥슨네트웍스는 오는 24일까지 인턴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인원은 약 3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수한 지원자가 많이 지원할 경우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또 11일부터 이틀간 도서관과 한라홀 부근에서 1대1 채용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보배 기자

부속시설 탐방 ③ - 국어문화원

“학생들이 먼저 우리말 아름답게”

제주어 보존에도 앞장



제주어 말하기 대회에서 초등학생들이 제주어를 뽐내고 있다.

“사람들은 책을 테이블이라고 해요. 휴대전화는 핸드폰 또는 휴대 폰이라고 하구요. 아직까지 의자를 চে어라고 하지 않는 게 다행이죠.”

우리말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국어문화원 김순자 연구원의 말이다. 그녀는 국민들의 언어습관에 대해 지적하며 할 말이 많은 듯 했다. “학생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외래어와 잘못된 맞춤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것이 국어문화원의 할 일이라며 당찬 포부를 늘어놓았다.

국어문화원은 지난 2006년 11월 국어상답소라는 가정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이듬해에 문화관광부에서 국가기관으로 지정돼 국어문화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어문화원은 언어 상담과 로마자 표기연구, 한글 맞춤법, 어문규정 교육 등을 포함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국어문화 학교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강좌를 연다.

학생들이 헛갈려 하는 맞춤법을 상담해 주고 바로 잡아 주는 역할 또한 국어문화원이 하는 일이다.

김순자 연구원은 “간판과 상품에도 잘못된 맞춤법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아이스크림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 설레임이죠. 과연 설레임이 맞는 표현일까요?”

필자도 설레임이 과연 맞는 표현인지 아닌지 잘 몰랐다. 설레임은 설렘으로 고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국어문화원의 활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단순히 우리 한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주어, 제주어, 제주어를 보존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어를 담은 국어 구술 자료집을 1년에 한 권씩 출판해왔다. 또한 제주어 말하기 대회도 연다. 2007년부터 국어문화원 주체로 열린 제주어 말하기 대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주어를 알리기 위해 매년 5월에 열린다.

김 연구원은 “제주어는 제주사람들의 정서가 담긴 문화”라며 “이 대회는 흔히 들을 수 없는 사투리를 보존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뜻 깊은 행사에 정작 대학생들의 참여는 저조하다. 대학생보다는 오히려 초·중·고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주어 보존에 힘쓰고 있다.

김 연구원은 “대학생들이 취업준비에 바빠 제주어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말하기 대회는 제주어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어문화원은 오는 9월 한글날을 맞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도 연다.

김 연구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외국인에게 한글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참가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학교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당신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기획·디자인에서 인쇄까지 ONE-STOP 공정으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은 물론 최상의 품질을 약속드립니다.

신우기획 / 도서출판 신우

상담전화 (064) 746-5030

• 제주시 오라3동 2988-4
• E-mail: sw5030@hanmail.net

■ 무론유설 ■

잘난체 하기와 선배 맞먹기

나는 매년 강의 첫 시간에 나의 수업 모토 두 가지를 학생들에게 알려준다. '잘난체 하기'와 '선배 맞먹기'. 내가 10여년간 우리 대학에서 강의를 해오면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리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논 의 중의 주제에 대해 나름대로 매우 독창적이거나 논 의 전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처음엔 학생들이 자신만의 비판적 견해가 없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기엔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발표를 주저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이 제출한 리포트를 읽어보면 자신만의 독특하고 의미 있는 견해가 많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만 혼자서 읽어보고 덮어두기엔 너무 가까운 내용들도 종종 발견된다. 이런 내용이나 견해들을 수업 시간에 발표하면 다른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다듬어가는데도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논 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수업도 훨씬 활기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도대체 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수업 시간에 잘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 것일까? 수업 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발표하면 뭔가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러면 주위 동료들로부터 질시를 받거나 심하면 왕따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나는 첫 강의 시간에 아예 수업 모토로 서로서로 '잘난체 하기', 그리고 그것을 서로서로 '기꺼이 수용하고 칭찬하기'를 강조한다.

두 번째 모토는 '선배 맞먹기'이다. 나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가부장적이고 수직적인 인간 관계에 고착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연령이나 직책, 직급이 일상적인 인간 관계를 너무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연령이 낮거나 직급이 낮은 사람은 뒷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표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대개는 '뒷 사람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기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는 강의 시간에 선배 의견에 기속거나 무조건 추종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자신의 생각은 뭔가 부족하고 하찮은 것이라 여겨 이야기하기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주제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세상을 이렇게 본다'고 당당하게 말하도록 유도한다. 그런데 강의실에서의 선배란 단순히 상대적으로 학년이 높거나 나이가 많은 학생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강의실에서 가장 학년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바로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 바로 나(손명철)이며 더 나아가서는 수강생들이 함께 읽고 토론하는 저서나 논문을 집필한 저자일 수도 있고, 논의와 관련된 저명한 학자나 성인(聖人)일 수도 있다. 이들의 주장이나 견해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보다는 그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봄으로써 자신의 의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과정이 곧 대학에서의 공부라고 일러준다. 이것이 바로 나의 수업 모토 중 하나인 '선배 맞먹기'의 참다운 의미라고 것도.

이번 학기에도 내가 담당할 모든 과목에서 나의 수업 모토를 더욱 크게 외쳐야겠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수업 모토를 널리 알려야겠다. 그것이 사범대학 선생으로서 내가 우리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몫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징검다리를 만들기 위해 깊은 강에 돌맹이를 하나 던져 놓는 심정으로...



손명철
지리교육전공 교수

■ 돌하르방 ■

우리가 'S라인'이 되고픈 진짜 이유

우리 집은 육식주의다. 늘 밥상에 고기가 빠지면 어딘가 허전하다. 덕분에 12살 꼬마 용희는 '열으로 성장'을 계속해 갔다. 사실 기억을 되돌려보면 그렇게 심각할 정도의 비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통통한 볼 살이 귀엽기까지 했다. 그러나 꼬마 용희는 그 통통함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결국 죄도 없는 삼겹살구이를 탓하며 '다이어트'를 선포했다. 한창 성장기였음에도 밥 먹던 양을 반으로 줄이고, 집에서 삼겹살을 먹을 때면 방안에 끄꽂 숨어있기도 했다. 덕분에 내 키는 160cm다. 나와 같은 환경에서 자라며 마음껏 밥을 먹은 여동생의 키가 173cm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작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가 어째서 통통함을 걱정하게 된 걸까?

그 무렵 TV에서는 '진실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이색적인 소재의 주인공들이 등장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내는 프로그램이다. 당시 TV를 틀었을 때 나왔던

출연진은 10kg 이상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TV에 비취진 그들의 모습은 단순히 건강함을 피쳤었기에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은 꽤 지났던 예전의 모습을 죄스럽게 생각하는 듯 했다. 다른 패널들은 그들이 건강을 피쳤었다는 사실보다 종종했을 때에는 '똥생긴 돼지'였던 사람이 살을 빼서 'S라인'이 됐다는 사실을 더 칭찬했다. 내 볼 살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살이 쪼는 것이 나쁜 것인 마냥 죄책감이 들었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원한다. 때문에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성형수술을 한다. 사람들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하기에는 요즘 사회가 너무 이상하게 돌아간다. 마른 여자도 저런만 되면 배가 고파도 밥을 굶는다. 거식증에 걸려서 살이 빠진 가수 코요테 신지를 보면 모두를 부러워한다. 우리는 '스스로 원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왜 사회가 이상해진 것인가?

7·80년대 미인은 자연이 낳은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으로 소수에 불과했다. 90년대 이후부터는 서구영화의 영향으로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이 미인으로 여겨졌다. 포토샵 등 프로그램이 개발되며 여성의 몸은 비현실적으로 조작됐다. 요즘에는 일명 '골프체 몸매'라 불리는 뺨뺨마른 몸매에 풍만한 가슴을 가진 몸매가 선풍의 대상이다. 자연적으로 갖추어 지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체형이다. 여성들은 미디어에서 그러한 이미지들을 접하며 마른 허리를 더욱 조이고 가슴수술을 한다.

우리 주변에도 'S라인'이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정말 스스로 원해서 예뻐지고 싶은 것인가 미디어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귓가에 속삭인다. 예쁜 연예인처럼 'S라인'이 아닌 네 몸은 돼지 몸통이라고. 우리는 어쩌면 아름다움을 강요받고 있는 지도 모른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지 한번쯤 고민해보자.

고용희 보도기획부장

■ 독자기고 ■

배추파동, 정부 적극 대처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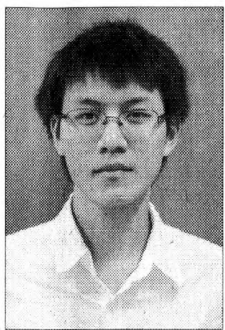
얼마 전 친구와 함께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주인아주머니께서 "다른 건 몰라도 샐러드는 남기지 마라, 샐러드 남긴 것을 보면 너무 아깝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일반잔치로나 나오는 야채 값들이 요즘은 본 배추보다도 더 비쌀 정도이다. 그것 때문에 어떤 식당에서는 김치를 추가할 때 알미를 더 받는 곳도 있고, 김치가 들어가는 메뉴를 보류한 곳들도 있다. 그리고 고기에 상추를 싸먹는대거나 식당에서 상추를 더 달라고 하면 처리된 고기를 더 주는 게 좋겠다. 김치가 금치라는 말들까지 나온다.

지금 야채 값들이 이렇게 된 것은 지난 태풍의 영향이 크다. 태풍 연무가 지나가자 곧이어 태풍 콘파스가 오고, 그것을 복구하기도 전에 태풍 말로가 들이쳤다.

그 때 상당량의 작물들이 쓰지 못하게 되고, 수해가 적었던 특정 지역의 작물들만이 조금 남아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그 후 배추 가격은 포기당 약 11,000원으로 평소의 10배 정도다. 배추 말고도 무, 양배추 등도 비슷한 처지라 그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

배추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다가 얼마 전야채 중국에서 수입하는 배추에 일시적으로 관세를 폐지하고 비상 수입을 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로써 배추 가격이 좀 안정될 수도 있겠지만 아쉬운 것은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배추가격이 폭등하는 것이 뻔했 보이는데, 그냥 넘 놓고 보고만 있다가 1년 중 대형마트나 일반 가게에서의 판매량과 소비량이 가장 많은 편에 속하는 추석이 훨씬 지나서야 대응

한다는 것은 너무 늦었다고 본다. 서민들이 한 톨, 두 톨씩 아껴가며 생활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반찬 중에 필수라고 하는 김치가 가격이 그렇게 오르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뒤늦게라도 대응했지만 그동안 김치가 격 때문에 마을을 돌렸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빠른 대처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이진웅(통신공학 2)

■ 독자기고 ■

9월을 마무리하는 단상

인터넷에 "염장이 뭐죠" 물으니 "안 그래도 빠치는데 더 갈구는 거"라고 대답했다. 그렇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뒤적거릴 것 없다. 배 제는데 왕소금 지르는 것이다.

2010년 9월 21일 저녁 텔레비전을 쳐다보던 늙은이들, "저게 워리다, 서울 아녀, 기어 광화문에 물고기 보라, 저런 천치바보 철갑선이여 이순신 장군이 뺨금 철갑선, 조흔 귀경 살것하네 군디 죽은 귀신 워리현대요, 질투 난리를 쳐두 푸린 지와 집허구 여의봉 도개비 뽕 달린 집은 권왕자 천만이라"한다.

조금 있으려니 웬 선비내외가 잘 차려 입고 텔레비전 앞에 나와 히히거려더니 눈물을 흘금대고 그린다. 허구 많은 사람이 다년간 이 풍진 세상에 누라고 호로에락이 없으리요. 죽은 어머니 되돌아오는 자식치고 효자 아닌 사람 없더라.

<동아일보>사설에 의하면 수도 서울에 8000여 가구를 비롯해 1만4000여 가구가 침수되었다. 서울 한 복판에 폭탄이 터졌다고 발각 뒤집혔는데 예전만 방송이라도 똑 끊고 벌떡 일어섰었다. 그래야 박수를 받는 국가지도자다. 추석이 끝나고 만나 속 터져 죽겠는데 저런 또 무슨 염장 지르는 소리냐.

기상청 대변인은 무슨 자량이라도 생긴 듯 연신 100년 만에 한파, 한여름은 처음이라고 떠든다. 지난 1월 100년 만에 폭설, 4월은 100년 만에 한파, 한여름은 기록적인 폭염, 이번 물 폭탄은 100년 만의 난리라고 100년을 거듭거듭 강조한다. 기상청이 하는 일이 엉터리 예보나 해대고 고작 최고 기록이나 작성하는 데나. 낮 뜨거운 줄 알아라 세금 아깝다.

2010년 9월 22일 아침은 차례를 지내고 온 식구가 둘러앉아 막 음식을 먹으려는 참인데 이금희 아나운서가 나오는 "아침 마당"에서 덩치 큰 뽕뽕이 뽕 씨는 시늉을 해가며 지랄을 한다. 염장 지르는 것도 가지가지다. 이어 뉴스가 나오는데 더 해괴한 것은 어제 저녁 그 선비가 잠바를 입고 물이 솟고 잔 집 아주머니 손을 붙잡고 흔들며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마음 편안하게 먹으세요"한다. 마치 "기왕에 당신 손모가지로 뽕았으니 줄잡아 2년은 꼭 참고 죽은 척 하세요"

2010년 9월 23일, 하늘이 저렇게 고울 수가 있을까. 마치 2010 FIFA U-17 월드컵 결승에 진출한 아이들 열골처럼, 눈물을처럼. 하염없이 울려다보며 예쁜 것, 기특한 것, 장한 것, 희망이 가득한 것들이 너희들만 같아라. 그대 너희들만 같

아라. 가슴이 뭉클 눈물이 주르르 시름이 한꺼번에 흘러내리더라니. 2010년 9월 26일, 1억 2000만엔만큼이나 긴긴 120분, 와-해냈다. 나는 몇 번이고 숨이 넘어갔다 끊겼다 연발하며 다리가 후들거려 움짱할 수가 없다. 아무렴 너희들이 주인이다. 이 나라 이 강산 한 덩어리 되어 물어보자. 풋볼 눈물 염장으로 확 막혔던 오장육부 말끔히 씻어보자.

폐일언하고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에서 받아내야 할 게 있다. 재산을 막아주는 수해금 말이다. 바닷물이 밀려와도 제주 섬이 가로 막고 태풍이 몰려오면 한라산이 가로 막아 버티고 서서 다독다독 달래준다 아니면 이쪽저쪽으로 교통정리하기 일수다. 조물주가 만들었지만 어제 그리 신통하지. 무량검의 비밀을 내가 알려버렸단 소문 내지 말고 똑똑히 받아내거든 기별해주오.



박홍배(대학원 철학과)

사설

교수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지난 주(840호·2010년 9월 29일자) 제주대신문은 '교수회장 선거법 개정 유감'이라는 사실을 게재하였다. 읽는 분에 따라 그 텍스트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그 사실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 투표를 행하는 선거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의 인식에 기초하여, 지난 주 실시된 교수회장 선거를 이전의 관행처럼 1회 투표로 종료하지 않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 결선 투표를 행하는 2회 투표방식으로 실시하기로 결정, 공지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였다.

결선투표제가 지니는 장점과 단점, 이 문제에 대한 대학 내의 다양한 견해들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이 내용까지는 하나의 주장으로서 성립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제주대 신문으로서서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사실이 교수회장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배제하고 1회 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하지는 주장에 머물렀다면, 이에 대한 찬반은 별론으로 하고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사실에는 또 하나의 중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교수회장 선거의 종전 관행은 1회 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교수회장 선거에서는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교수들의 사전 의견조율도 거치지 않고 교수회장 선거법을 개정하여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것은 유감이라는 내용이였다. 변경의 여지가 없다. 이 내용은 전적으로 잘못된 사실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오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롯되었다. 2004년 제1대 교수회장 선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번의 교수회장 선거가 있었다. 이번 실시된 제4대 교수회장 선거를 제외한 이전의 교수회장 선거에서는 매년 교수회장 임 후보자가 2명씩이었다. 과반수 득표를 요건으로 하는 결선투표는 사실상 불필요한 상황

이었다. 그래서 결선투표 없이 1회 투표로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번 교수회장 선거에서는 임후보자가 3명이었다. 교수회장 선거법(정확하게는 제주대학교교수회규정)에 결선투표제가 규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결선투표를 공지하고 실시해야 할 상황이었다.

교수회장 선거의 결선투표제는, 지난 주 사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실시된 제4대 교수회장 선거를 위하여 선거법 개정 방식으로 새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제대 교수회장 선거 때부터 현재의 교수회장 선거법에 이르기까지 계속 존속해온 것이다. 지난 주 사실의 주장과는 달리, 3명의 교수회장 임후보라는 종전과 다른 상황을 맞이하여, 교수회는 2004년부터 지속되어 온 결선투표 규정을 이번 교수회장 선거에서 성실하고 합법적으로 이행하였다는 것이 진실이다. 현행 규정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이 없었다든지 사전 의견조율이 없었다는 비판이 가해질 수 없다.

신문 발간 후 교수회의 지적 등으로 이러한 잘못을 확인한 제주대신문이 내부적으로 겪은 당혹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어려운 논의 끝에 아무런 변명 없이 깨끗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실에서 잘못이 있었으므로 똑같은 규모의 사실 형식으로 진실을 밝히고 사과한다는 것도 결정하였다. 신문에서 사실이 지니는 의미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고통스럽게 않을 수 없는 결정이었다. 그래도 진실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것이 대학신문이 지니는 교육적 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교수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독자들에게도, 제주대신문의 역사에 공헌해 온 많은 분들께도 사과드린다. 어려운 조건이지만, 진실을 향하여 더욱 더 활발할 것임도 함께 약속드린다.

신임교수 릴레이 인터뷰 - 정석근(해양의생명과학부·수산학)

“훌륭한 제자 양성에 헌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는 해양연구하기에 안성맞춤이예요.”

9월 1일자로 새롭게 임용된 정석근(해양의생명과학부) 교수의 말이다. 평소 해양 연구를 위해 제주를 자주 들렀던 정 교수는 제주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고 했다. 이국적인 자연환경과 함께 정이 넘치는 순박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 연구를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그가 제주에 교수로서 다시 찾게 된 것은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수산업과 관련된 폭넓은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 교수는 연구를 하면서도 꿈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한다. 그러다 이번 7월에 제주대의 채용공고를 보게 됐다.

“4년 동안 연구자에 있으면서 무언가 다른 일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에게 직접 수업을 가르쳐보고 싶었죠. 그걸 위해 준비하던 중 7월에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어요. 제주를 주변이 온통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양에 대해 연구하고 교육하기에 아주 좋아요.”

하고 싶던 꿈을 이루게 되어 기쁜 그이지만 그만큼 부담감도 크다고 한다. 처음 교수로 부임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수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처음 교수로써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니 아직은 수업하는데 부담이 있어요. 특색 있는 나만의 수업방식을 갖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교수님과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앞으로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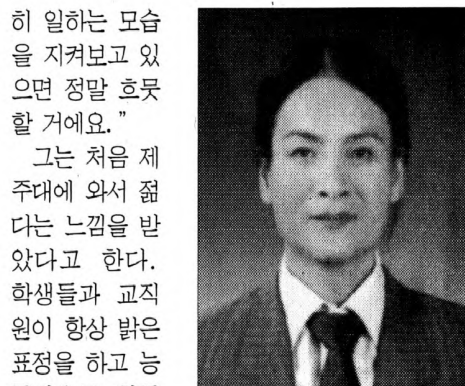
그는 학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잘 갖춘 제자를 키우고 싶다고 했다. 스스로 할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연구할 줄 알며 금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도전 할 수 있기를 바랐다.

“내가 교수로 지내는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꿈은 훌륭한 제자를 배출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업을 주도 할 수 있는 제자를 길러내서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흐뭇할 거예요.” 그는 처음 제주대에 와서 젊다는 느낌을 받았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항상 밝은 표정을 하고 능동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캠퍼스도 자연과 잘 어울려져 매우 아름답다고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아쉬운 점도 있다고 했다.

“취업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활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비전과 동기를 부여해서 활기찬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학생들도 너무 취업에 연연해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다보면 언젠가 반드시 성과를 거둘 거라고 믿고 노력했으면 해요.”

교수가 된 만큼 정 교수는 제주의 해양 산업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주가 섬이기 때문에 고립되는 단점이 있지만, 이런 지역적 특색을 잘 살려서 국제교류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제주에 섬이기는 하지만 일본과 중국 한국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해 제주대가 좀 더 많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주가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성장했으면 해요. 저도 제주해양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석근 전임강사

그리고 캠퍼스도 자연과 잘 어울려져 매우 아름답다고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아쉬운 점도 있다고 했다.

“취업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활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비전과 동기를 부여해서 활기찬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학생들도 너무 취업에 연연해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다보면 언젠가 반드시 성과를 거둘 거라고 믿고 노력했으면 해요.”

교수가 된 만큼 정 교수는 제주의 해양 산업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주가 섬이기 때문에 고립되는 단점이 있지만, 이런 지역적 특색을 잘 살려서 국제교류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제주에 섬이기는 하지만 일본과 중국 한국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해 제주대가 좀 더 많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주가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성장했으면 해요. 저도 제주해양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우 기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쓴 글을 오피니언면에 게재하고, 독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제주대신문을 읽고 난 후 느낀점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및 계좌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754-2279, press@jejuu.ac.kr
홈페이지 http://news.jejuu.ac.kr

제주대신문 학생기자들의 봉사활동 체험

“봉사활동 고맙다고요? 저희가 얻는 보람이 더 크죠”

“10월 2일이 무슨 날이에요? 갑자기 웬 봉사활동 이예요?” “그것도 모르냐? 노인의 날이잖아.”

봉사활동을 계획하면서 제주대신문사 학생기자들 사이에 오간 말이다. 이 같은 상황은 신문사에서 일어나지만 학생들이 10월 2일이 무슨 날인지 모른 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주대신문 기자들은 지난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며 뜻 깊은 하루를 보내기 위해 제주시 오라2동에 위치한 제광요양원(이하 제광원)을 찾았다.

바쁘다는 핑계로 대학에 들어와서는 제대로 된 봉사활동을 해 보지 못했다. 오랜만에 하는 봉사활동이라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부담감이 컸다. 우리의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분위기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 오전 10시에 도착 해보니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꽃간장을 마치고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몰라 가지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했다. 그러나 차 타고 이동하는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들이 가는 것이 즐거웠는지 가는 내내 노래를 흥얼거리며 신이 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오동마을을 지나칠 때에는 양승남 할아버지의 입에서 “오동동동”하고 끊임없이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 모습을 보니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졌다.

처음 도착한 곳은 민속자연사박물관이었다. 구경하기에 앞서 다리가 불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 휠체어를 끌며 이동하는데 처음에는 문턱이 있을 때 휠체어를 조금 들어서 지나가는 것도 몰라 허둥지둥 했다. 또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에는 휠체어를 탄 할머니들이 다치지 않게 뒤로 내려와야 했다. 봉사활동을 오랜만에 하는 것이라 실수도 많았지만 나중에는 손에 익숙해져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

우리가 구경 온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어르신들이 살았던 시대를 자세히 보여줬다. 초가를 짓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물 허벅을 기르는 것까지 어르신들은 옛 생각에 즐거운 표정이었다. 필자가 휠체어를 끌던 할머니는 “옛날에는 구덕에서 애기를 돌보고 그래서”라며 구덕에 아기를 키우던 시절을 다시 떠올리는 듯 했



지난 2일 제주대신문 학생기자들이 제광요양원 어르신들과 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나들이를 했다. 초가를 짓고 있는 전시물을 보며 어르신들이 옛 생각을 떠올리고 있다.

다. 그리고 해녀를 보자 즐겁게 설명을 해줬다. 기자들은 처음 보는 어르신들에게 어색한 사투리를 쓰며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고 할머니들에게 살갑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할머니들은 제주도 아이가 사투리도 잘 쓴다며 칭찬을 늘어놓았다.

구경을 마치고 박물관 앞에서 우리들만의 조촐한 노래공연을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즐겁게 노래를 불렀고 기자들도 답가를 부르며 즐겁게 놀았다.

그리고 나서 허기진 배를 채우려 간 곳은 순대국밥집이었다. 맛있는 점심을 먹은 뒤 소화도 할 겸 오랜만에 바닷바람을 쐬려 용두암 해안도로로 향했다. 우리가 점심은 얻어먹었으니 간식은 간소하게 아이스크림을 사서 어르신들을 대접했다. 아이스크림을 먹던 구공순(77세) 할머니는 “이거 먹으면 못값앙 어떻게 하죠”라며 아주 작은 선물에도 고마움을 표현했다. 해준 것이 별로 없는데 작은 마음도 크게 받는 어르신들에게 너무 감사했다.

짧은 시간의 나들이를 마치고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왔다. 제광원에 들어서니 나들이를 함께 다녀온 어르신들보다 몸이 불편해 누워 있는 어르신들이 더 많았다. 이성덕 원장은 “나들이를 가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할머니들이

대부분”이라며 “어쩔 수 없이 양호한 할머니들만 동행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기자는 요양원에서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준비를 마쳤다. 생각 외로 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 봉사활동을 온 것이니 만큼 할 일을 찾기 위해 선생님에게 도움 일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왔다. 선생님은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벗이 돼 주는 것만으로도 봉사활동은 이미 한 것”이라고 말했다.

봉사활동 힘들다는 편견 버려야
마음 나누는 것으로도 큰 의미

이 말을 듣고 기자는 그동안 봉사활동을 너무 어려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고 장기와 화투도 함께 즐겼다. 화투는 일반 화투보다는 크기가 컸다. 화투가 왜 이렇게 크냐고 물었더니 같이 게임을 하던 선생님이 “할머니들이 눈 시력이 좋지 않아서 봉사활동을 왔던 사람들이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크게 만들어서 보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서 마음 써주는 봉사활동가의 모습에 나는 또 한 번 감동했다.

습에 나는 또 한 번 감동했다.

간식시간이 됐다. 그 가운데 몸이 많이 불편한 이규원 할머니(63)에게 간식을 먹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할머니를 찾아갔다. 그러나 할머니는 간식도, 이야기도 잘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

봉사 일화에 그치는 경우 많아
정기적인 봉사활동 필요

문원옥 할머니(71)는 “아이네 언제 올 줄 알았 강행수와. 올때 확 밥알 먹음서. 오날만 그렇게 받아먹는 거주 다음부터는 그런 일도 어시매”라는 말을 들었다.

고맙게도 기자가 준 간식을 다 먹은 할머니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맙다”라는 말을 했다. 고맙다라는 말이 그렇게 마음을 울리는 말인지 몰랐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오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오지 않는지를 알 수 있었다. 단기간으로 봉사활동하는 것이 문제고 주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성덕 원장은 “봉사는 정기적으로 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봉사를 할 때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을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했지만 그새 정이 들었는지 헤어질 시간이 되자 아쉬운 기분이 들었다. 어르신들은 “내일되면 너네 다 까먹는디 어떻게, 미안하디게. 그리고 고맙다”라며서 우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부대기 할머니(71)는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되네. 좋은 사람도 잘 만나고”라며 세월을 많이 사신만큼 우리에게 많은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요즘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자신들을 위해서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봉사활동을 하면 좋지만 시간이 많이 뺏긴다며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봉사는 꼭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그저 말벗이 돼주는 것도 봉사라고 말할 수 있다. 봉사는 우리 가까이에 있다. 또 봉사활동은 시간이 많이 들지만 그만큼 더욱 보람차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이수진 기자

인터뷰 / 영어말하기대회 금상 수상 이치현씨

“두드리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결과가 어떻게든 우선 도전해보면 상보다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지난달 30일 열린 ‘제31회 영어말하기대회’에서 대학부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한 이치현(국어교육 4)씨를 만났다.

“예전부터 대회나 공모전에 참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상을 받아본 적이 한번도 없는데 처음으로 금상을 받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여서 너무 놀랍고 또 기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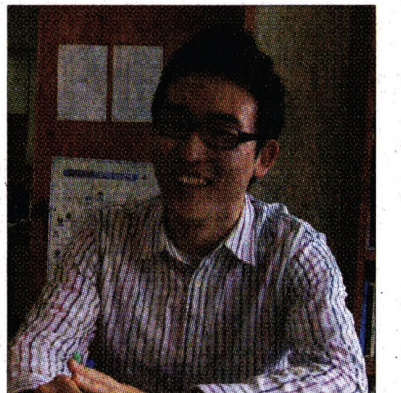
그는 많은 대회와 공모전에 참가하며 상을 받긴 받지 못하긴 일단 도전해보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고 한다. 대회에서 결과가 좋으면 더 좋겠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걸 배우기에 도전한다는 그는 남들보다는 늦은 나이에 영어에도 도전장을 던졌다.

“군대를 제대할 때까지 정말 영어를 못했었어요. To 부정사도 제대로 모를만큼 영어에는 흥미가 없었죠. 근데 이탈리아인과 일본인이 저에게 길을 묻는데 영어 단어 몇가지와 몸짓으로 설명이 다 통하더라고요. 영어권 지역 사람들이 아는데도 영어로 통할 수 있어나가 그 때 영어의 매력을 느끼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그는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영어공부를 시작했다. 영어를 잘 못했던 그는 쉬운 중국과 영어 참고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다. 쉬운 영어책이지만 그 책 한권을 다 공부하게 되는 성취감이 그를 더 영어에 빠져들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영어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강의도 많이 듣고 영어공부도 쉬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영어공부를 할 때는 토익책으로 공부를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토익에 나오는 문장들이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또 토익책은 대부분 한권씩 갖고 있었어요. 그 책으로 공부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어학연수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조언했다. 어학연수를 가게 되면 큰 돈을 쓰게 되는데 어



이치현(국어교육 4)

학연수를 갔다가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안좋은 길로 빠지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저는 어학연수를 잘 다녀온 편이지만 주변에서 어학연수를 갔다가 막에 빠지거나 제대로 영어공부도 못하고 돌아오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어학연수를 무턱대고 가면 영어가 늘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도 안 늘어서 그냥 돌아오는 학생들도 많죠. 어학연수를 가려면 외국인들과 일반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영어공부를 충분히 해둬야 외국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고 재밌게 어학연수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다. 정치외교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그는 기회가 된다면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해보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모든 일에 도전해볼 수는 없겠지만 그는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다 끝나면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물론 그 때는 많이 늦은 나이겠지만 제가 해보고 싶은 일들은 언제든 됐든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에게서 패기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모습이 더 많은 응원을 보내주고 싶다.

박현 기자

제주대 의식개선 프로젝트 - 2. 학교물건은 자기물건처럼

학교물건은
자기물건처럼

강의실 책상 위에 고적인 낙서며, 깜빡잊고 지나친 형광등, 불필요하게 꼽힌 콘센트 등 결국은 당신의 등록금을 갇아 먹는 일! 우리의 작은 배려와 관심으로 학교물건을 내 것처럼 아낀다면 그것이 바로 등록금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